

[마음의 간헐] (in, M. 프루스트, '소돔과 고모라 2')

... 발백을 다시 찾았던 첫날 저녁, 나는 갑자기 심장 장애를 일으켰다. 격렬한 아픔을 멈추게 하려고 나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허리를 구부리고 구두를 벗으려고 하였다. 그런데 내가 첫 번째 목구두의 단추에 손을 대는 순간, 나의 가슴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그러나 너무도 귀중한 어떤 현존감으로 (ein unbekannter goettlicher Gegenwart) 충만해졌고, 그러자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면서 나는 어린애처럼 흐느껴 울었다. 심장에 충격을 받은 나를 도와주려고 달려 온 어떤 것, 나를 얼어붙은 감정으로부터 구해준 그것은, 수년 전 지금과 똑 같이 내가 어려움에 빠지고 외로왔을 때,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말았을 때, 나에게 달려와서 나를 구해준 바로 그것이었다. 그때 나에게 나 자신을 다시 돌려주었던 그것은 나였지만 나 이상의 무엇이었고, 그래서 그것은 마치 그 어떤 내용물이 아니라 그 내용물을 안에 간직해서 나에게 그 내용물을 가져다 준 그릇이나 봉투 같은 것이었다. 바로 그렇게 지금 내가 기억 속에서 다시 만난 사람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러나 사랑이 가득한 얼굴로, 마치 내가 어린 시절 발백에 도착하던 첫 날, 내게 몸을 기우리고 나를 달래어 주었던 그 할머니의 얼굴이었다. 그 할머니의 얼굴은, 그 동안 나를 지극한 슬픔으로까지 데려가지 않았던 한 사람, 그래서 나 자신도 놀라면서 스스로를 비난하게 만들었던 어떤 사람, 그러니까 그저 이름과 똑 같았던 할머니가 아니었다. 그건 정말 할머니의 얼굴, 샹젤리제 거리에서 발작을 일으킨 이래 내가 한 번도 다시 만나지 못했던 할머니, 그 할머니의 얼굴을 방금 나는, 생각지도 않았던 그러나 너무도 완전한 기억 속에서, 다시 만난 것이었다 (wiederfiden).

그런데 이 놀라운 현실성 (Wirklichkeit)은 분명 어떤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통과해서 도착하지 않는다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것임에 틀림없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전쟁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위대한 서사시인이 되어야 했을테니까 말이다. 지금 나는 그 되살아 난 현실 속에서 할머니에게 달려들어 목을 껴안고 싶은 미칠 것 같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이제야 비로소,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일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에야야 비로소, 그러니까 사실의 달력과 감정의 달력 사이에 놓여있는 시간의 착오 속에서 (Anachronismus), 처음으로 분명히 '할머니는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물론 그 동안 나는 할머니를 많이 생각하고 또 할머니 얘기도 많이 했었다. 그러나 이 말과 생각들 뒤에는 감사할 줄도 모르고 제 생각에만 몰두하는 한 젊은이가 있었을 뿐이어서, 그 안에 지금 내가 만난 기억 속의 할머니처럼 생전의 할머니와 똑 같은 할머니의 존재는 한 번도 있어본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할머니는 나의 경박함과 이기주의 그리고 할머니의 병에 대한 익숙함 때문에 내 안에 그저 잠재적인 상태로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영혼에 대해서 말하지만, 영혼을 생각하면 그 영혼은 언제나 가공적인 것이 되고 만다. 우리의 영혼은 무한히 풍부한 것임에도 그 영혼의 전체와 만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영혼의 전체가 아니라 그 영혼의 일부분만을,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다시 만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나는 돌아가신 할머니에 대한 진정한 추억 속에서 (in der wirklichen Erinnerung) 나의 영혼 전체와 만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건 분명 기억 (Gedaechtnis)이 장애를 일으키면서 일어나게 된 마음의 간헐 (Aussetzen des Herzens) 때문이었다.

우리가 경험했던 과거의 일들, 그 기쁨과 아픔들을 하나도 잊지 않으면서 우리 안에 간직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건 우리들 자신의 육체, 스스로 눈앞에서 보게 되는 자신의 육체 때문이다. 우

리는 스스로 보는 자기 육체를 하나의 그릇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소유하다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안에 담긴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로 늘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때로 어떤 내용들이 잊혀지거나 다시 되돌아오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은 우리 몸 안에 변함없이 간직되어 있는 거라고 믿는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비록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간직하고 있다고 해도 그러나 그것들이 간직되어 있는 장소는 우리들 자신에게 알려지지 않는, 우리들 자신도 알지 못하는 그런 장소일 수 있다 (ein unbekanntem Bereich in mir).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삶의 경험들, 그래서 우리의 의식이 쫓아내버린 모든 삶의 내용들이 간직되어 있는 이 장소는 우리 안에 있으면서도 까맣게 잊혀져 있는 그런 미지의 장소이다. 그러나 어느 계기가 있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체 전체를, 우리의 감정들 모두를 다시 만나게 되면, 이 알려지지 않았던 장소는 돌연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면서, 그때까지 우리의 주인이었던 '나'를 밀어내고 우리의 육체 모두를 장악하면서 또 다른 우리들 자신의 '나', 예기치 않게 새로 태어나는 '나'가 된다. 구두를 벗다가 돌연히 할머니를 다시 만난 나도 그런 나, 그러니까 발백에 처음으로 도착하던 어린 시절의 나였다. 그 나는 방금 전 할머니와의 만남이 있기 전에 있었던 나, 일상의 시간을 따라 살아가던 나가 아니라, 그 일상적 시간의 흐름이 갑자기 끊어지면서 만나게 되는 '나'였다. 그리고 지금 나는, 그동안 잊혀졌던 시간 때문에, 어린 시절의 나가 되어, 발백에 도착하던 첫 날 울적했던 내게로 부드럽게 몸을 숙여 위로해 주던 그 때 그 곳의 할머니와 즉각적으로 다시 만나게 된 것이었다. 이제 나는, 오랫동안 내게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나가 되어 있었고, 마치 꿈에서 깨어난 사람이 여전히 꿈 속의 소리를 듣는 것처럼, 그때 할머니가 내게 했던 말들을 지금 여기서 그때처럼 생생하게 듣고 있었다.

나는 이제 할머니의 품 안으로 뛰어들고 싶은 어린 시절의 나일 뿐이다. 또 지금 나는 병든 할머니의 입에 키스를 하면서 할머니가 당하는 아픔의 흔적들을 모두 지워버리고 싶은 나다. 이 나는 그동안 일상 속에서 무수히 존재했었던 그런 '나들'과는 전혀 다른 나다. 나는 지금 할머니가 없으면 단 한 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나다. 그러나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처음으로 그 할머니를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만나는 이 순간에, 나는 또한 알고 있었다, 할머니는 돌아가셨다는 걸, 할머니는 두 번 다시 내게 돌아올 수 없다는 걸, 할머니는 이제 내게 영원히 낯선 사람이 되었다는 걸.

영원히 잃어버린 할머니, 그 사실을 나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이 '마음의 모순이 일으키는 고통 (das Leiden an diesem Widerspruch im Herzen)'을 꼭 붙들고 놓으려 하지 않는다. 한편으로는 지금 내 안에 다시 살고 있는 한 존재, 오직 내게로만 향해 있었던 그래서 오직 나만의 것이었던 할머니의 사랑, 세상의 그 어떤 위대한 천재의 작품이 있다고 해도, 비록 잘못을 저지르긴 했어도 그 천재의 작품들과 비교가 안 되도록 나를 더 귀하게 여기고 안아주었을 할머니의 그 부드러움이 나의 안에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그 어떤 것이, 지금 나를 가득 채우고 있는 그 생생한 행복을 가로지르고 있는 거부할 수 없는 어떤 것이 또한 나를 붙들고 있었다. 그건 할머니는 돌아가셨다는 사실, 나는 영원히 할머니를 잃어버렸다는 사실, 그리하여 지금 이 지극한 행복 또한 아무 것도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고통스러운 확신이었다.

...하지만 이 고통이 아무리 가혹하다해도 나는 온 힘을 다해서 거기에 매달린다.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고통은 할머니에 대한 생생한 기억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이 고통을 통해

서만 나는 기억의 생생함을 또한 간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오로지 그 견딜 수 없는 고통 안에서만 할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으며 고통은 할머니가 살아있을 때처럼 지금도 나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단 하나의 증거라는 사실을. 때문에 할머니에 대한 기억을 내 안에 고정시키고 있는 것이 아무리 아픈 것이라고 해도 나는 차라리 그 것이 더 아프게 내 마음에 박히기를 바랄 뿐이다. 마치 우리가 어느 사람의 사진 앞에서, 그가 우리를 떠났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다고 믿으며 사실은 끊어진 관계가 여전히 변함없는 관계인 양 사진에게 거짓으로 말을 걸고 기도를 하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할머니는 지금 나를 잠깐 떠난 것 뿐이며 나는 할머니를 그저 한 동안 만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그런 식으로, 나는 결코 나의 고통을 달콤하게 만들거나 아름답게 만들고 싶지 않다. 나는 결코 나를 속이고 싶지 않다. 오히려 나는 이 견딜 수 없는 고통, 내가 부르지도 않았지만 갑자기 나를 찾아 온 이 고통을 꼭 붙들고 싶다. 차라리 그 고통이 자기만의 법칙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미 죽고 없음과 여전히 살아 있음이라는 저 이상한 모순 속에서 (in dem seltsamen Widerspruch von Nichts und Weiterleben)’ 나를 더 아프게 하며 내 안에 머물러 있기를 바랄 뿐이다. 그렇게 나는 나에게 돌연히 닥쳐 온 ‘내 고통의 독자성 (Singularitaet meines eigenen Leidens)’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면서, 그 ‘고뇌의 특별한 법칙 (das besondere Gesetze des Leidens)’을 통해서, 지금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언젠가는 ‘이 죽음의 갑작스런 계시 (die ploetzliche Offenbarung des Todes)’가 내게 알려주고자 하는 진리를 (Wahrheit)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

구두끈을 매다가 새롭게 알게 된 고통 덕분에 나는 어머니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경악하면서 알아볼 수 있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래, 늘 먼 곳을 바라보던, 눈물도 없이 건조하고 메마른 어머니의 시선은, 프랑스와즈가 매정하다고 투덜대던 것과는 달리, 기억과 죽음 사이에 존재하는 저 알 수 없는 모순 (der unbegreifliche Widerspruch zw. Erinnerung und Nichts), 그러니까 기억을 하면 할수록 아무 것도 넘겨지는 것이 없다는 모순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Verwandlung). 모든 기쁨이 어머니로부터 떠나갔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했다. 어머니는 말하자면 온 몸이 용해되어 그 어떤 간절한 기도의 조상 (Flehenbild)으로 응고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조상은, 조금만 움직이거나 조금만 큰 소리를 내어도, 어머니를 꼭 붙들고 있는 고통스러운 존재 (die schmerzliche Praesenz)가 어머니로부터 떨어져나가고 말까봐 두려워하는 것만 같았다.

특히 어머니가 크레이프 외투를 입고 들어왔을 때, 나는 어머니가 아니라 죽은 할머니를 눈앞에서 다시 보는 것만 같았다. 마치 왕이 죽으면 아들이 그 왕위를 이어받는 것처럼, 하지만 그와는 비교가 안 되도록 내밀하고 뿌리 깊은 그 어떤 세대교체의 법칙을 따라, 죽은 자는 살아있는 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자신의 또 다른 존재로 만들고 후계자로 만들면서 끊어진 삶을 다시 이어가는지도 몰랐다. 그러니까 할머니를 잃어버린 고통은 어머니 속에서, 만일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훨씬 나중에야 그렇게 되었겠지만, 마치 일찍 깨어나 고치를 벗어버리는 나비의 변신처럼, 어머니 안에 잠들어 있던 어떤 존재를 깨워서 나타나게 하는 것 같았다.

.....

...나는 혼자서 전에 빌파라지 부인과 내가 할머니와 함께 걸었던 큰 길 쪽으로 산책을 나갔다.

햇빛이 쨍쨍한데도 아직 덜 마른 웅덩이 때문에 길은 질퍽거렸다. 나는 할머니가 그 길을 걸으면서 두 걸음도 채 못 걸어 옷을 진흙투성이로 더럽혔던 일을 기억했다. 길은 그렇게 젖어 있었어도 그 길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맑고 깨끗했다. 할머니와 함께 산책을 했던 그 8월에는 다만 사과나무들이 들어서 있었고 잎들 몇 개만이 매달려 있었지만, 지금은 꽃이 활짝 핀 사과나무가 가득 들어서 있었고, 화려한 무도회 의상을 입은 할머니는 두 발이 진흙 속에 빠지면서도, 내가 생전에는 본 적이 없는 장밋빛 새틴의 옷자락, 햇살을 받아 더 없이 아름답게 빛나는 그 공단 무도복의 옷자락이 더럽혀지는 것도 모르는 채 즐거워 하고 있었다...